�� 《마디 맞이》

첫 마디

툭 : 마디는 늘 맞이였다

1부. 인생 마디

1장. 첫 마디

엉성한 첫 마디

덜 마른 흙벽처럼 갈라졌고

흔들림뿐이던 내 인생

그 갈라진 틈새에

새살이 돋고 있었음을

그땐 몰랐다

지워지지 않는 흉터

더 단단해 진 딱지

그건 흔적이 아니라

날 잡아 준 버팀목

완벽하지 않은 첫 마디

다음 마디의 숨길

그렇게 그는 내게 다가왔다

나를 울렸다.

2장. 멈추니 생긴 마디

나는 한동안 멈추는 법을 몰랐다.

언제나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믿었다.

멈추면 뒤처지고, 멈추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다그치며 내디뎠다.

그러나 삶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번 나를 세워 세웠다.

예상치 못한 병, 관계의 단절,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

그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엔 원망이 앞섰다.

왜 하필 지금 멈추어야 하는가.

남들은 달려가는데, 나는 왜 갇혀 있어야 하는가.

멈춤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놓치게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다.

멈춤이 내게 빼앗아간 것은 속도였지만,

멈춤이 내게 돌려준 것은 시선이었다.

멈춰 선 자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있었다.

앞만 보고 달리던 눈으로는 잡히지 않던 색과 빛이,

조용히 서 있는 내게 비로소 다가왔다.

무엇보다 멈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했다.

외면하던 상처, 밀어내던 두려움,

숨기던 연약함이 멈춘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순간들을 버티기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그 자리에서 나는 다른 내가 되었다.

멈춤은 단순한 쉼이 아니었다.

멈춤은 새로운 마디였다.

달려갈 때는 만들 수 없던 울림을,

멈춤이 내게 지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멈추는 순간이 두렵지 않다.

멈추니 생겨나는 마디가

내 삶을 더 깊게 만들고,

나를 다음 길로 이끌어간다는 걸 알기에.

3장. 떠난 후 남은 마디

공허

그리고 침묵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들

그의 온기

그의 음성

그의 어떠한 흔적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그가 내게 다시 다가왔다

그가 남긴 파문은

내 행동을 바꾸었고

그가 남긴 말은

내 말을 달라지게 했고

그가 남긴 행동은

내 삶을 변화시켰다

떠난 그를 잡을 수는 없었지만

그가 남긴 흔적들은 잡을 수 있었다

그가 남긴 빈 자리는,

내게 새 마디 짓기터

그의 떠남은

내 삶을 이어주는 다리

4장. 이어 다시 튀는 마디

살다 보면 한 번 끊어진 것들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믿을 때가 많다.

깨진 관계, 멈춰버린 길, 꺼져버린 불씨.

다시는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 절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뜻밖의 순간,

끊어진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이어지고,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살아나며,

나는 놀라곤 했다.

상처투성이의 관계가 시간이 흘러 다시 마주보게 될 때,

포기했던 일이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나타날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어짐은 같은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었다.

한 차례 끊어지고, 멈추고, 아파한 뒤에야

비로소 다른 결, 다른 깊이로 이어졌다.

그 이어짐은 튀어오르는 힘이었다.

한 번 더 깊이 내려간 만큼,

그 반동으로 다시 솟아올랐다.

나는 알게 되었다.

끊어짐은 실패가 아니었고,

멈춤은 끝이 아니었다.

그 모든 순간이 다시 튀어오를 힘을 기르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디는 단절이 아니라 도약이었다.

이어 다시 튀는 마디가 있었기에

나는 여전히 길 위에 설 수 있었다.

�� 《마디 맞이》 1부 마무리 (에세이 + 한 줄 툭)

나는 이제 안다.

첫 마디의 서툼도, 멈춤의 공허도, 떠남의 상실도

결국은 다음을 위한 마디였다.

처음은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토대가 되었고,

멈춤은 나를 세웠으며,

떠남은 내 안에 새로운 울림을 남겼다.

그리고 끊어짐은 도약이 되었다.

마디는 내 삶을 조각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어주는 숨길이었다.

한 줄 툭

인생의 마디마다, 나는 다시 살아났다.

2부. 길 위의 마디

5장. 시작의 마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일은 언제나 두렵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머릿속에 계획을 세워도, 마음속에 다짐을 새겨도,

막상 그 자리에 서면 공허가 밀려온다.

나는 종종 시작을 미뤘다.

더 준비해야 한다는 핑계,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는 합리화.

그렇게 미루다 보면 시작은 점점 멀어지고,

시작하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가 버렸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완벽한 준비가 끝난 순간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시작은 준비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불안정한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것이 곧 시작이었다.

돌이켜 보면 내 삶의 중요한 마디들은

대부분 서툴고 불안한 시작에서 비롯되었다.

어설펐지만, 그 시작이 있었기에 다음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이어짐이 결국 내 삶을 다른 울림으로 바꾸었다.

시작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시작이야말로 새로운 마디를 열어젖히는 힘이다.

나를 낯선 길로 내몰고,

익숙한 나를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다른 나를 만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안다.

시작은 불안으로 쓰여 있지만,

그 불안 속에 다음을 여는 숨길이 숨어 있다는 것을.

한 줄 툭

시작은 완벽이 아니라, 불안 위에 세운 다리였다.

6장. 흔들림의 마디

길 위의 나는 흔들리고 있었다

잡으려 할수록 멀어졌고

버틸수록 무너져 내렸다

바람따라 내 발자국은 흩어졌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 내 마음은 흔들렸다

흔들린다는 건

무너짐이 아니라

아직은

서 있음의 증거라는 걸 깨달은 건

그 때였다

흔들렸기에

나는 쓰러지지 않았고

흔들렸기에

나의 뿌리내림은 더 깊고 단단해졌다

7장. 채워져 울린 마디

살아가다 보면 빈자리가 많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 이루어지지 못한 꿈,

사라져버린 관계와 끊어진 시간.

그 빈자리는 내 안에서 공허라는 메아리를 울려댔다.

나는 한때, 그 공허를 두려워했다.

마치 구멍이 뚫린 듯,

그 자리를 메우지 않으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서둘러 무언가로 채우려 했다.

일, 사람, 성취, 심지어는 무의미한 소음들까지.

하지만 그렇게 채운 것들은 금세 흩어졌다.

남는 건 다시 공허였다.

그때서야 알았다.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게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천천히 스며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들어온 사람,

뜻밖에 다가온 말,

우연처럼 찾아온 기회.

그것들은 억지로 불러낸 것이 아니었다.

빈자리가 있었기에,

그 울림이 내 안에 닿을 수 있었던 것이다.

채워짐은 욕심의 결과가 아니었다.

멈춰진 빈자리와 그 울림이 만나

새로운 마디를 만들어낸 선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빈자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어 있기에 울릴 수 있고,

그 울림 속에서 내 삶은 더 깊어진다.

한 줄 툭

비어 있었기에, 울릴 수 있었다.

8장. 배우며 넘어선 마디

넘어졌다

무너졌다

일어 섰다

넘어졌다

무너졌다

일어 설 힘이 없었다

넘어졌다

무너졌다

일어나지 못할 줄 알았다

상처

부끄러움

그 자리에 남은 것들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게 그것들은 배움이란 선물이었기에

배움은 쓰러짐의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힘임을

넘어짐은 멈춤이 아니라

다음 마디의 디딤돌이었음을

난 그 보따리를 열어보고서야 알게되었다

9장. 길 위에서 맞이한 나

길 위를 걸어오며 나는 수많은 마디를 맞이했다.

첫 마디의 서툼, 멈춤의 공허, 떠남의 상실,

이어 다시 튀어오른 도약.

그리고 시작의 두려움, 흔들림의 불안, 채워짐의 울림,

넘어짐 속의 배움.

그 모든 마디들은 흩어진 조각 같았지만,

돌이켜 보면 하나의 길을 이루고 있었다.

나는 늘 다음 마디를 찾아 나아간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길 위에서

내가 맞이한 것은 언제나 “나”였다.

흔들린 나는 더 단단해졌고,

넘어진 나는 다시 일어섰다.

떠남 속에서 남은 나는,

멈춤 속에서 다시 숨을 얻은 나는,

모두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이었다.

길 위의 마디들은 나를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던 나를 드러내는 창이었다.

나는 마디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마디마다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알겠다.

길 위의 마디는 끝없는 여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한 줄 툭

길 위의 모든 마디는, 결국 나를 맞이하는 길이었다.

3부. 마디와 맞이의 교차

10장. 맏이 같은 마디

준비되지 않은 부름

나는 맏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세워졌다.

그 이름에는 책임이 달라붙었고,

기대와 두려움이 함께 따라왔다.

누르지 않고 나를 세운 삶의 무게

처음에는 그 무게가 원망스러웠다.

왜 내가 먼저 맞아야 하는가,

왜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가.

그러나 그 무게는 나를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 뿌리를 더 깊게 내리게 하려는 힘이었다.

내 뒤를 항상 받쳐 주던 울림, 맏이 같은 마디

내가 흔들리면 뒤따르는 이들도 흔들렸다.

내가 버티면 그들에게도 길이 열렸다.

맏이로서의 자리는 결코 나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 자리는 공동체의 울림이 교차하는 첫 마디였다.

11장. 맞이로 열린 마디

뜻밖의 만남

삶은 내가 준비한 방식으로만 오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기치 못한 얼굴로 다가왔다.

계획에 없던 사람, 문득 들려온 말, 우연히 건넨 손길.

그 만남은 나를 열어젖혔고, 내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열림의 순간

맞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문을 열어주는 일이 아니었다.

내 마음의 빗장을 풀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일이었다.

닫힌 채로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다.

열림 속에서만 새로운 울림이 들어올 수 있었다.

교차의 자리

맞이의 순간마다 나와 타인의 이야기가 교차했다.

내 울림만이 아니라, 그들의 울림이 스며들며

새로운 마디가 태어났다.

맞이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바꾸는 교차점이었다.

12장 ― 마지라 불린 마디

끝의 이름, 마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다.

길이 멈추고, 문이 닫히는 자리.

사람들은 그것을 마지막이라 불렀다.

나 역시 그 앞에 서면 두려웠다.

끝이 아닌 다른 맞이

그러나 마지는 단순한 종결이 아니었다.

닫히는 순간, 다른 문이 열렸다.

멈춤 뒤에 또 다른 울림이 이어졌고,

끝의 자리에서 시작의 기운이 스며들었다.

교차의 자리

마지라 불린 그 마디는

마디와 맞이가 서로 포개지는 자리였다.

끝이자 시작, 멈춤이자 열림.

나는 그 교차 위에서

또 다른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마디 맞이》

마디라 불린 끝,

맞이라 불린 시작.